

지식 소유시대의 종말: “MOOC”

“세계 어디에 있던지, 돈이 있든 없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최고의 지식을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지식에 대한 기회의 문은 이것을 탐하는 자에게 무한하게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전통적 ‘지식전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뉴욕타임지는 2012년을 “MOOC”의 해로 명하였으며, 이는 교육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TIME誌는 MOOC 현상으로 아이비리그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강의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대학들의 강의를 무료나 최저가로 일반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습망을 일컫는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개념은 전통적 교육시스템에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일상에 파고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년을 넘게 굳게 닫혀있던 세계의 상아탑들이 경쟁하듯 스스로 빗장을 풀어 쫓히는 데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지식은 소수가 사회를 통제하고 신분을 유지하는데 획기적인 도구였다. 이후 오랜 시간동안 지식의 양과 질은 괄목하게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지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경계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지식을 전달(delivery)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하루 동안 창출되는 지식의 양이 수백 년 동안 축적한 정보의 양보다 많은 오늘날 지식은 더 이상 특정계층이나 개인에게 소유될 수 없는 일상적인 재화(commodity)가 된 것이다.

빌 게이츠가 아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한다는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Khan Academy”가 좋은 예이다. 설립자 Khan은 불과 몇 년 전 멀리 떨어져 있는 조카의 수학 공부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유튜브(YouTube)에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 ‘칸 아카데미’ 방문자수는 월 6백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강의들은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선생들로부터 학습 피드백이나 개인지도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학교 시스템이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공교육에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MIT나 스탠퍼드, 예일, 하버드대학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은 기존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공개강좌 방식에서 탈피, ‘Cousera나 Udacity, edX’와 같은 전문적으로 MOOC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자신들의 강의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강좌는 무료나 햄버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세계 최고의 지성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MOOC 강좌를 진행한 미첼 더네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본인이 20년 동안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을 한 학기에 온라인에서 가르쳤으며, 세계 각지의 학생들은 교실에서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 있던지, 돈이 있든 없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최고의 지식을 접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지식에 대한 기회의 문은 이것을 탐하는 자에게 무한하게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전통적 ‘지식전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 HRDer의 역할과 캐릿의 소명은 무엇인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James Roh

Written by C.E.O James Roh

“두드려도 소용없다. 혼자 힘으로 열고 들어오너라!” _ 나쓰메 소세키